



인도, 유통업체 자사 상표 승부수 가격경쟁력 통해 소비자 어필

인도 유통업체들이 자체적으로 상표 및 브랜드를 기획, 개발해 판매하는 자사 상표(자체 브랜드/Private Label) 상품을 확대시키는 등 매장 내 자사 상표의 구성비율을 높이고, 상품 종류를 다양화하고 있다.

아디티아 비를라 리테일(Aditya Birla Retail)의 경우, 현재 전체 판매 중 약 3% 수준의 자사 상표의 판매비중을 2~3년 안에 10~15%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자사 상표는 유통업체가 제조업체와 협력해 독자적으로 개발한 상품으로, 중간 유통마진과 마케팅비용을 줄여 유통업체는 높은 이윤을 유

지할 수 있게 하고 소비자는 질 좋은 물건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산업 관계자에 따르면, 자사 상표의 이윤 정도는 생활소비재 15~20%, 전자제품 20%, 의류는 30~70% 수준이며 소비자들은 브랜드 상품에 비해 최소 5~20% 정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릴라이언스 자사 차(tea)는 5백g에 1백18루피인 반면, 힌두스탄 유니레버(HUL) 브랜드의 'Brooke Bond'는 4백90g에 1백32루피에 판매되고 있다.

인도상공회의소(ASSOCHAM)과 KPMG의 공동보고서에 따르면, 인도 유통시장은 2008년도 기준 약 3천5백30억 달러 규모에 이르렀고, 2010년까지 약 4천1백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도 전체 유통시장 중 조직화된(organized)

부분은 약 5백10억 달러 규모로 형성됐으며, 이중 약 10~12% 가량 자사 상표 및 브랜드가 차지하고 있다.

인도 대형 유통업체 중 트렌트(Trent)는 자사 상표 침투율이 90%에 달하며 릴라이언스(Reliance)와 판타룬(Pantaloon)은 각각 80%와 75%를 차지하고 있다.

퓨처 그룹(Future Group)의 빅바자르(Big Bazaar) 자사 브랜드를 살펴보면 의류의 경우 John Miller, Bare, DJ&C, Indigo Nation, RIG 등이 있으며 식료품에는 Tasty Treat, Fresh n Pure, 가전에는 Sensei and Koryo, 일반 잡화로는 Dream-line 등이 있으며 그 외에도 퓨처그룹은 스포츠웨어, 속옷, 미용제품, 생활소비재 등으로 자사 브랜드 제품군을 확대할 계획이다.

릴라이언스 리테일(Reliance Retail)의 자사 브랜드는 식료품의 경우 Reliance Select, Reliance Value 등이 있고 유제품에는 Dairy Pure가 있다.

RPG의 스펜서스(Spencer's)의 자사 브랜드를 살펴보면 식품은 Smart Choice, 의류에는

Island Monks, Mark Nicolas(남/여성 캐주얼), Puddles(유아복), Little Devils(아동복), Asankhya(개량복), Scorez(스포츠웨어) 등이 있다. 잡화로는 Maroon Cookware, 전자 및 전기에는 Jerat Electronics가 있으며 그 외 슈퍼스탑(Shoppers Stop)은 STOP, Kashish, LIFE, Vettorio Fratini, Elliza Donatein, Acropolis 등의 자사 브랜드를 보유하며 웨스트사이드(Westside)는 Gie, 2F4U 등이 있다.

인도 유통시장의 급속한 성장으로 대형 유통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유통업체들은 자사 상표를 개발해 새로운 사업전략으로 활용하면서 자사 상표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수익성 향상과 차별적인 마케팅을 구축하고 있다.

인도 유통업체들은 자사상표 개발을 생활 잡화에서 식품, 의류, 전자제품 등으로 강화하고 점포 내 비중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자사 상표 상품은 가격에 민감한 인도 소비자들에게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일정 수준의 품질 또한 보증된다면 유통업체에 납품하는 현지 제조업체들에게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된다.



▲ 스펜서스(Spencer's)의 자사 브랜드 'Smart Choice' 제품들



필리핀, 최초 환경전시회 PINES 개최
환경 컨퍼런스, 투어 등 이벤트 포함

환경보호와 환경친화적인 트렌드를 반영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필리핀 최초의 환경전시회 PINES(Philippine International Eco-Show)가 지난 달 26~28일(3일간) Pasay City에 위치한 필리핀 최대 전시장 SMX Convention Center에서 개최됐다.

금번 전시회는 무역산업부(DTI) 산하의 무역진흥기관인 CITEM(Center for International Trade Expositions and Missions)가 주최하고 필리핀 상공회의소(PCCD), 미국 상공회의소(AmCham), the Haribon Foundation 및 Solid Waste Management Association of the Philippines(SWAPP)가 후원했다.

CITEM은 전시회는 물론 국제적인 컨퍼런스도 기획하고, 이를 통해 환경산업 동향과 이슈들을 보여줌으로써 기업들의 미래 생존전략을 기획하는데 중요한 방향을 제시하겠다는 의욕을 보였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울러 다양한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선보임으로써 필리핀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변화시키는 전기가 되는 동시에 환경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는 주요한 계기로 삼았다고 평가했다.

이번 전시회는 3개 분야(zone)로 구성됐다.

하나는 Eco-Industrial Zone으로 지속가능한 건축 및 그린빌딩을 위한 환경친화적인 건축 자재와 솔루션, 낭비요인을 줄임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주택 및 건설자재, 가정용

품, 전자부품, 설비 등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전시됐다.

다음으로 Eco-Lifestyle Zone으로 자연친화적인 주택과 유기농 제품들, 건강 및 웰빙 서비스 제품, 건강하고 다양한 삶의 선택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공간창출, 신재생에너지와 폐기물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공공과 민간을 연결할 수 있는 제품들을 선보였다.

마지막으로 Eco-Conference로 지난 달 26~27일 이틀간 다양한 국제적인 환경포럼을 포함한 환경산업과 관련된 글로벌 트렌드, 정책, 이슈 등을 중심으로 미래의 방향과 트렌드들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외에도 Philippine International Eco-Awards와 같은 특별한 이벤트로 필리핀 환경산업에서의 탁월한 성과들을 인식시켜 줬으며 전시업체들은 필리핀인 등 전시 관람인들에게 환경친화적 제품과 서비스들을 소개하는 전시마케팅의 기회를 제공했다.

한편 주요 도시와 기업들을 방문하는 Eco-Tour, 프로 및 아마추어 사진작가들을 위한 Eco-Photography Tilt를 마련해 전시회를 더욱 풍부한 환경친화적 공간으로 제공했다.

이 전시회에 참가하는 업체들은 최신의 환경친화적 제품들과 환경친화적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주며 필리핀에서 입수가 가능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보호 제품들과 기술들을 선보였다.

주요 참가업체들은 세계적인 브랜드들인 Nestle, Sharp, Jollibee, Mariwasa 그리고 Palafox Associates 등이다.

주목할 만한 필리핀 기업으로는 필리핀 최대

의 화학기업으로 1006년 Golden Shell Award 수상기업인 Chemrez Technology Inc.를 들 수 있다. 건축자재를 비롯, 페인트, 석유화학 제품과 농업 및 가정용 의약품을 생산하고 최근에는 바이오에탄올 등 신재생에너지를 중점 생산하고 있는데 green chemistry 철학을 구현해 내는 것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다음으로 2004년 Golden Shell Award 수상기업인 Nature's Legacy도 눈길을 끌었다. 이 업체는 필리핀 중부지역의 섬인 세부(Cebu)에 위치한 글로벌 기업으로 농업과 임업 분야에서의 환경보호와 친환경 제품생산을 선도해 나가고 있다.

이외에도 디자인 회사이자 신문폐지를 활용해 환경 지속적인 전망을 담은 작품들과 생활 소품들을 생산한 Tes Pasola도 주목을 끌었다.

PINES 컨퍼런스의 주제는 "Towards a Greener Earth"로 첫날에 국제규범들이 채택한 주요 환경 규정들과 환경 표준들로 채워져 지구 온난화에 대항하는 입장에서 국제사회와 공조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으며 둘째 날은 그린빌딩, 그린비즈니스, 그린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 sector track이 진행됐다.

이번 CITEM은 이번 PINES 개최가 필리핀에서의 그린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인식을 높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필리핀인들에게 좀 더 지속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소비 패턴의 변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 유익한 전시회가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기업들에는 환경에 대한 관심과 책임을 강조하는 전기가 됐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CITEM 관계자는 "그린산업이 이제는 하나의

당위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와 민간의 파트너십을 요구하고 있어 기업적인 마인드와 학술적인 것들의 혼합 협력이 필요한 분야인 동시에 국제협력이 매우 긴요하다는 점도 깊이 인식하는 교류의 장이 됐다"고 밝혔다.

美, 혁신적인 친환경 포장제품 선봬 식물 추출물과 쓰레기 활용 제품 개발

최근 미국에서 혁신적인 친환경 포장재로 알려진 포장재들은 천연소재가 주원료로 나타남에 따라 미국 기업의 포장 트렌드에 맞춰 한국 제품의 포장재를 새롭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나왔다.

먼저, Ecovative Design社가 선보인 '버섯으로 만든 포장 내장재-EcoCradle packaging'은 그동안 쓰레기로 버렸던 버섯 화이버를 이용해 제조했으며 미국과학협회에서 18만 달러를 개발기금으로 지원했다.

제조과정에 사용하는 에너지의 98%를 절약했으며 현재 Steelcase와 같은 몇몇 Fortune 5백대 기업들이 사용함하고 있다. 이 회사는 면화 씨, 밀 껍질 등과 같은 농업 쓰레기를 이용한 친환경제품 개발 전문업체이다.

두 번째로 P&G社가 선보인 '사탕수수 추출물로 만든 1백% 친환경 용기'는 2011년부터 사탕수수를 원료로 만든 플라스틱 용기로 포장된 샴푸와 화장품 판매를 계획 중이며 향후 2년 내 전 세계적으로 이 용기로 포장한 제품 판매 계획을 갖고 있다.



이 회사의 주력 브랜드인 Pantene Pro-V, Covergirl, Max Factor brands 제품에 사용했으며 브라질 업체인 Braskem SA가 사탕수수에서 추출한 에탄올로 포장용 플라스틱 생산 공급했다. 이 포장용기는 기존 플라스틱(HDPE) 용기와 같은 밀도를 보유해 세제류 포장에 문제가 없다.

세 번째로 Frito-Lay社의 '1백% 옥수수 추출물로 만든 자연분해 포장 백(Bags)-SunChip 포장지'는 옥수수에서 추출한 polylactic acid(자연 분해되는 酸)으로 제조했으며 1백% 천연 물질 포장지와 자연 분해되는 특징으로 주목받았다. 이 제품은 한국업체 SKC에서 개발 및 대량생산 성공해 세계적인 스낵업체인 Frito-Lay에 공급 중으로, 친환경 소재의 포장재를 식음료 제품에 사용한 세계 최초의 사례이다.

Dell社의 '대나무로 만든 포장 내장재' Bamboo-based Cushioning'는 폴리에틸렌 폼(스티로폼)을 대신하고 재활용이 가능하다. 석유를 사용하지 않아 에너지 절약과 아울러 쓰레기 처분시 환경파괴 위험을 대폭 낮췄으며 유사 제품으로는 Synbra Technology社의 BioFoam(사탕수수로 제조돼 자연분해 가능함)이 있다.

Hewlett-Packard社의 '1백% 재활용 원단으로 만든 랩탑용 가방-Messenger Bag'은 2008년부터 기존 포장의 97% 제거하는 포장방법을 사용했다. 랩탑을 박스에 넣지 않고 메신저 가방에 넣고, 큰 가방에 여러 개를 넣어 점포에 공급하게 된다. 소비자가 랩탑 구입 후 운반이 편리하고 아울러 지참하고 다닐 때도 사용 가능하다. 1백% 재활용된 원단으로 가방 제작, 운송시 박스보다 공간 덜 차지해 운송비 절감을 이뤘다. 현재 Walmart, Sam's Club 등에서 판



▲ 미국의 혁신적인 친환경 포장 제품들

매 중이다.

Method社の '1백%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만든 가장 작은 세제 병-Squirt Bottle'은 일반적인 2배 농축제품에 비해 8배 농축 제품 개발함으로써 포장 사이즈를 대폭 축소했다. 과다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펌프 착용으로 한번 펌프마다 일정량 나오도록 설계해 소비자들이 과다 사용하지 않고 정확하게 사용하는 양을 알 수 있도록 한 1백% 재활용된 HDPE 사용으로 친환경 용기이다.

현재, 미국 기업들은 친환경화를 향후 경쟁력으로 인식하고 지속적인 투자를 단행하고 있다. 미국 소비자들의 친환경 및 재활용제품의 선호도도 증가하고 있으며 기업들도 탄소배출과 온실가스 배출 감축 위한 포장재 개발 노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포장재 외부소싱은 친환경 제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경향이 있다.

칠레, 생산자책임 재활용 제도 시행 업체 및 소비자 재활용 의식 제고

칠레의 경우 산업분야는 정부가 직접적인 환경규제를 하고 있으나 가정의 경우 분리수거와 재활용에 대한 제도가 실시되지 않고 있다. 또한 산업분야는 생산설비, 오염유발설비 등에 대한 규제에 집중하며 기업들 또한 정부 규제 부문에 대한 설비투자가 대부분이다. 그 결과, 전자제품, 타이어 및 자동차, 기계용 윤활유 등이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폐기되며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실정이다.

실제로 칠레 수도인 산티아고 외곽지역 및 지방도로 주변에서 폐차, 페타이어, 폐기 전자제품이 쌓여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으며 장기간 방치된 폐기물도 있다.

뿐만 아니라 주유소 및 기타 차량 정비소에서 특별한 여과장치 없이 각종 윤활유 제품을 폐기하는 상황으로 수질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현재 칠레 대기업 중 일부는 자발적인 환경보호 캠페인을 펼치며 대표적으로 전자제품과 컴퓨터 제품 취급업체인 Dell, Olidata, HP, EPSON, LG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폐배터리, 납 분야, 화학제품 분야에서 민관 협력체가 구성돼 환경보호를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또한 페타이어는 현재 칠레 타이어산업협회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이 폐기물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 및 재활용 방안을 논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폐기물 관리제도 부재를 해결하고 좀 더 체계적인 환경보호 시스템을 위해 칠레 환경부는 이달부터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폐기제품의 무수거 및 처리법안 마련을 추진 중이다.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제품의 수입 및 판매에만 열을 올려 왔던 현지 유통업체 및 현지 제조업체들은 자사 취급 폐기제품을 의무 수거해야 하며 재활용 또는 적절한 폐기 절차를 통한 사후처리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칠레 정부는 이 법안으로 향후 전혀 재활용이 이뤄지지 않는 전자제품, 타이어 등의 재활용 분위기가 고조될 것으로 예상하며 수질 및 토양 오염의 주범 중 하나인 화학제품의 적절한 관리체



계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칠레 산업계의 재활용 및 환경보호 정책은 기업체의 자발적 노력에 전적으로 의존했으며 시스템적인 의무제도는 없었다. 그러나 이번 환경부의 조치는 각 기업의 환경 보호의무에 대한 인식을 강화할 것으로 보이며 국가 전반의 환경 관리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 반대로 각 가정의 환경보호 의식은 여전히 제도 및 국민의 인식 부족으로 큰 진전을 보지 못해 이에 대한 정책 또한 혁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일부 구청의 시범적인 쓰레기 분리수거 및 재활용 캠페인은 제도적 의무화와는 별개의 사안이며 일부 관심 있는 주민의 참여로 시행되고 있다.

또한 아파트, 주택 등의 쓰레기 수거 시스템 또한 유리 및 폐지를 제외한 모든 쓰레기가 함께 배출되는 실정이며 아파트마다 지정해 사용되는 플라스틱 봉투 또한 상당한 오염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칠레 폐기물 및 쓰레기 관리 부문의 과제는 산업계는 물론 일반 가정의 쓰레기 배출 관리, 철저한 분리수거 시스템 도입 등이 중심이 돼야 할 것이다.

칠레 재활용 및 쓰레기 분리수거 시스템은 아직 걸음마 단계라고 할 수 있으며 본격적인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 의식고취는 물론 쉽고 간단하게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제도 마련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기술을 보유한 우리나라는 향후 강화 예정인 칠레 폐기물, 쓰레기 재활용, 처리분야에서 협력이 가능할 것이며, 특히 산업 폐기물 처리분야에 대한 수요가 가장 가까운 시일 내에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과테말라, 플라스틱 생산량 및 수출량 회복 원료 수입 급증

플라스틱 산업은 과테말라에서 규모가 큰 산업 중 하나로 분류되며, 현재 Coguplast(과테말라 플라스틱협회)의 자체 인증을 받은 업체는 생산업체와 수출업체를 포함해 44개 사가 있다.

이들의 대부분은 품질경영인증(ISO 9001 및 140000)을 취득한 양질의 업체들이다.

수출액으로 봤을 때, 플라스틱산업은 과테말라 전체 수출액의 약 2.3% 정도를 차지하는 수출액 순위 12위의 산업이다(2009년 기준). 또한 주요 수출대상국은 대부분 중미국이며, 인접국인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가 매년 수출 1, 2위 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 외에 코스타리카, 니카라과, 벨리즈, 파나마 등 기타 중남미 국가들이 주요 수출대상국이며, 미국 역시 주요 수출대상국 중 하나이다.

작년 말에는 멕시코, 자메이카, 트리니다드토바고 등 새로운 수출시장을 개척함에 따라 향후 수출에 더욱 활기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액과 마찬가지로 수출량은 계속해서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2008년에는 사상 최대의 수출

량을 기록한 적 있으나 2009년 경제위기와 함께 큰 폭으로 감소해 위기를 맞게 됐다.

2009년 최악의 상황을 겪었던 플라스틱 산업은 올 초부터 점점 회복의 기미가 보이기 시작해 전년 대비 올해 수출액은 5월까지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5월까지의 수출액은 '09년 대비 약 25% 증가했으며, 관계자들은 이를 회복의 기미로 판단하고 원료 수입과 생산량을 늘리는 등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 중이다.

2009년 대비 올해 1~5월 생산량 변화율을 보면, 4월 한 달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눈에 띄는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올해의 플라스틱 산업은 생산량 및 수출량 증가 등 회복의 기미가 여러 군데에서 감지되지만, 여전히 단기간에 2008년의 시장상황으로 회귀하기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생산성과 이에 따른 이윤이 2008년만큼 높지는 않아 아직까지는 시장 분위기가 침체돼 있다.

따라서 관련 정부 기관 및 업계 관계자들은 이 시장의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제품의 다각화 및 생산성 증대를 위한 노력을 하는 중이다. 또한 이 산업의 진흥을 위해 관계자들은 1년에 두 번 씩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달 7, 8일 양일 간 개최될 예정으로 25~30개의 업체가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논의 내용은 플라스틱의 재활용과 라이프 사이클, 플라스틱 제조 및 변형과 이에 관련된 새로운 기술, 이노베이션, 플라스틱 사용 동향 등으로 예상된다.

최근 들어 과테말라 사람들의 플라스틱 산업

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번 회의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참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테말라의 플라스틱 시장은 지난해 최저점을 찍은 이래, 올해 들어서는 지속적으로 회복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2008년의 시장 상황으로 회복하지는 못하는 가운데, 관련 업체 및 협회 등은 시장의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고 있다.

수출량 증가에 따라 생산량도 증가하며, 이에 따라 원재료 수입 역시 늘어나고 있으며 주요 원료 원산지는 미국, 멕시코, 콜롬비아, 한국, 사우디아라비아 등으로, 원재료 수출이 가능한 국내 관련 업체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

독 자 켄 럽 오 심

월간 포장계는 독자여러분들의 의견을 수용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의 독자컬럼을 모집합니다.

어떠한 의견이라도 좋습니다.

포장인의 독설을 펼칠 지면을 할애하니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필자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월간 포장계 편집실

TEL : (02)2026-8655~9

E-mail : kopac@chollian.net